

# 신문의 FRBR 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FRBR Model to Newspaper

장인호 (Inho Chang)\*

### 목 차

- |                              |                         |
|------------------------------|-------------------------|
| 1. 서론                        | 3. 데이터 요소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신문 수준               |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2 신문기사 수준             |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4. FRBR의 신문 및 신문기사로의 적용 |
| 2.1 FRBR의 통합 개체와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 | 4.1 신문 수준의 FRBR 적용      |
| 2.2 슈퍼저작                     | 4.2 신문기사 수준의 FRBR 적용    |
| 2.3 FRBR와 연속간행물              | 4.3 FRBR 개체별 적용-종합      |
|                              | 5. 결론                   |

### 초 록

본 연구는 신문과 그 기사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매체 수준과 신문기사 수준으로 나누어 데이터 요소를 분석하고 FRBR 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신문매체 수준의 경우, 신문, 조석간 구분, 호, 판을 각각의 저작으로 처리하였으며, 그들 간의 관계는 전체-부분 관계로 설정하였다. 신문기사 수준의 각각 기사도 저작이며, 이들은 신문매체 수준의 판과 전체-부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문기사는 텍스트, 사진, 그래픽, 표 등으로 표현되며, 각각 별도의 저작이다. 각각의 저작은 신문기사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독립하여 하나의 신문기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고정물과 연재물의 통일 제목은 각각 저작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신문기사와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신문제호의 변경에 의해 하나의 묶음으로 하는 통일 제호는 슈퍼저작으로서 그들 간에도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pplication of the FRBR model to newspapers and news articles. In order to meet the purpose that was mentioned above, we analyzed data items based on the level of newspapers and articles and discussed how the FRBR model may be applied. In terms of the level of a newspaper, each of newspapers, morning/evening paper, issue and edition are regarded as an individual work,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m are considered to be the 'whole-part relationship'. Each article on the level of article basis was considered to be a work and was in a relationship of 'whole-part relationship' with the edition of each level of newspapers. Newspaper articles can be represented as texts, photographs, graphics, and tables, etc., and regarded as an individual work. Each work can be a part of the article on a newspaper or can be an independent article itself. Moreover, a uniform heading of each boxed article and running story is included in the work of each article and is forming a 'whole-part relationship'. Because of the changes of the newspaper name, the uniform title of each name regarded as a single binding. It is called the superwork and it is forming 'whole-part relationship' with each name.

키워드: 개념모형, FRBR 모형, 신문, 신문기사, 데이터 요소, 슈퍼저작, 전체-부분 관계  
Conceptual Models, FRBR Model, Newspapers, News Articles, Data Items, Superworks, Whole-part Relationships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hoinchang@gmail.com)  
논문접수일자: 2015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8월 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33-349,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3.33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신문은 독자에게 전달되어 읽히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보통, 뉴스의 경우 실세계에서의 사상(事象)이 있고 이것을 기자가 인지하고 그 사실을 텍스트나 사진, 그래픽, 표 등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인쇄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후 복수의 개별 신문이 가정 또는 기관 등에 배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가정 또는 기관에 배달된 신문은 읽힌 뒤 클리핑하여 스크랩북에 저장한 후 재이용되거나, 지면 그대로 제본하거나 축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판 등으로 제작되어 보관된 후 재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전자 파일화되어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이후 아카이브에 데이터베이스로서 보관되어 재이용되기도 한다.

연속간행물 중 저널의 경우 권호에 판차(제40판, 제45판 등)가 없으나 신문은 같은 호에 여러 판이 있고 각각의 판이 표현되고 구체화된다. 가령 같은 날 같은 호라도 가정에 배달된 판은 제40판이고 어떤 기관에 배포된 판은 제45판일 수 있다. 물론 일부의 판이 섞여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40판에 실렸던 기사가 제45판에는 누락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신문은 뉴스기사만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뉴스 외에도 소설이나 수필, 시 등의 문학 작품, 붓글씨, 사진, 그래픽 등의 저작도 전달한다. 또한, 기사를 부분으로 갖는 고정물이나 연재물 등도 있다. 이렇게 신문과 그 기사는 매우 복잡한 서지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신문 영역의 서지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이하 FRBR라 한다)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RBR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행본 중심이고 (김혜선, 이해진, 정도현 2007),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소수 있으나 신문 매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신문매체에 관한 연구로는 Antelman(2004)이 신문 매체와 차별화하지 않고 신문을 연속간행물로서만 일부 다루고 있거나 Le Boeuf 등(2014)이 온톨로지를 적용하여 저널이나 신문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정도이다.

신문 매체는 연속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학술지 등의 일반적인 연속간행물과는 간행빈도, 내용이나 형태 등에 차이가 있다(이창수 2011). 따라서 신문은 일반적인 연속간행물과 구별되어야 하며, FRBR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도 연속간행물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즉, 내용과 형태면에서 일반적인 연속간행물과 차이가 있는 신문과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FRBR 모형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신문과 신문기사의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FRBR 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FRBR 적용에 있어서 보통의 연속간행물과 신문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슈퍼저작의 필요성 및 축쇄판, 스크랩북 등 신문의 재이용을 위한 보존 형태에 따른 서지적 관계 및 FRBR 모형의 적용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하여 FRBR 모형의 개체의 정의와 전체-부분 관계와 일반적인 연속간행물에 대한 기존의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신문에 대해 FRBR 모형의 통합 개체와 그 구성 요소에 대응하여 신문 수준과 신문기사 수준으로 나누어 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을 바탕으로 신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과 신문기사에도 FRBR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둘째, 신문과 신문기사는 학술지 등의 연속간행물과 FRBR 적용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제호가 변경되었으나 지령이 이어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넷째, 신문에서의 고정물이나 연재물은 FRBR 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다섯째, 클리핑 기사를 모은 스크랩북이나 제본 신문, 축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판에 있는 신문과 신문기사는 어떻게 FRBR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신문기사에는 보도 뉴스 이외의 개체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 비평 기사, 논설, 칼럼 등의 피처(feature)도 존재한다(임영호 2005). 이것들은 모두 보도 뉴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광고물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신문 발행 이후의 재이용을 위한 보존 형태가 될 수 있는 스크랩북, 제본 신문, 축쇄판, 마이크

로필름판, CD-ROM판과 사진, 그래픽, 만화 등의 개체는 서지 개체로서 FRBR 모형의 적용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FRBR 모형의 개체로서는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제1그룹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1 FRBR의 통합 개체와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

FRBR 보고서(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 1998)는 모두 10가지의 개체를 정의하고 있으며,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제1그룹은 서지 레코드에 명시되었거나 기술된 지적, 예술적 노력의 산물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이다. 제2그룹은 이러한 산물의 지적, 예술적 내용에 책임을 지거나 물리적 제작이나 배포, 관리상의 책임을 지닌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3그룹은 그 산물들의 주제로 사용된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이다.

동 보고서는 제1그룹에 대해, 주로 통합단위로서의 개체를 보여주고 있다. 통합단위로 볼 수 있는 개체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 개체이면서 구성 요소인 개체를 표현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FRBR 모형의 목적상 통합 수준이나 구성 요소 수준에 속한 개체는 통합단위 수준의 개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통합단위 수준의 개체와 동일한 용어로 정의되고,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저작 수준에

서 전체-부분 관계와 표현형 수준에서의 전체-부분 관계, 구현형 수준에서의 전체-부분 관계, 개별자료 수준에서의 전체-부분 관계에서는 전체-부분 관계라는 차원에서 통합 개체이면서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전체-부분 관계로서 저작 및 표현형 수준에서의 하나의 예시로 연속간행물의 권호와 학술지의 논문을 들고 있으며, 구현형과 개별자료 수준에서는 특별한 연속간행물 관련 예시는 들고 있지 않지만, 물리적 개체로서의 전체-부분 관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간행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Shadle 2007).

편집자에 의해 선집으로 함께 모아진 저작들, 출판사에 의해 총서로 함께 수집된 단행본들, 아카이브에 의해 단일의 풍(fond)으로 정리되는 기록 등의 통합 개체들은 FRBR 모형에서 하나의 저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상위 저작의 구성 요소를 저작 자체로 취급할 수도 있으며, 통합 개체와 구성 요소 개체들을 전체-부분 관계로 다루었다(Arlene 2007).

O'Neill(2005)은 집합체 저작은 복합적 저작들을 포함하는 개체로 지적 또는 예술적으로 분리된 더 규모가 큰 저작의 구성 요소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집합체 저작들은 저작들의 부분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전체-부분 관계는 통합 저작과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개개 저작들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Vellucci 2007).

Vellucci(2007)는 단일화된 저작은 집합 저작의 특성을 포함하지만, 개념적으로 다르며, 집합 저작은 집단 저작을 형성하기 위해 저작들 그리고 저작들의 독립된 부분들을 모으지만, 집

합체로서 개개의 구성 요소 저작은 그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단일화된 저작은 하나의 단일화된 저작이 되기 위해 통합된 두 가지 유형들의 의미적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FRBR의 통합 개체와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는 연속간행물과 그 논문(기사)을 각각의 개체로서 인정할 수 있다. 신문은 호, 판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속성이 판 이하고 뉴스 기사, 사설, 해설, 피쳐 등 다양한 기사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신문과 그 기사는 통합 개체와 그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로 볼 수 있다.

## 2.2 슈퍼저작

Svenonius는 '슈퍼저작' 용어와 모든 저작 및 동일한 지적 기원에서 전해지고 있는 저작의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서지적 가계'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Smiraglia 2007 재인용).

슈퍼저작은 단독으로는 실체가 되지 않는 각각 저작의 집합체이다. Svenonius는 "원저의 모든 구현형 및 거기로부터 파생한 모든 구현형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슈퍼저작은 또, 리뷰, 비평, 색인, 서지와 같은 저작에 근거하는 모든 새로운 저작을 포함한다. 이 문맥에서는, 많은 서지는 한 저작의 모든 표현형과 구현형 및 다른 관련 저작을 함께 거느리는 슈퍼저작으로서의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Fattahi 1996; 吉田曉史 2001 재인용).

Carlye(1996)는 표목이 기본기입이든 부출기입이든 저작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동일한 저자-표제 표목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목록 레코드의 연결 장치인 '슈퍼저작 레코드 집합'의

개념을 기술하는데 슈퍼저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Smiraglia 2007 재인용).

춘향전이라고 하는 고대소설은, 영화로서 1955년에 '춘향전'(감독 이규환), 1957년에 '대춘향전'(감독 김향), 1961년에 '성춘향'(감독 신상옥), 1971년에 '춘향전'(감독 이성구), 1987년에 '성춘향'(감독 한상훈), 2001년에 '춘향뎐'(감독 임권택), 2010년에 '방자전'(감독 김대우) 등의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이들 영화를 같은 저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더욱, 원래의 춘향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각각의 저작보다 상위의 추상적인 개념의 춘향전을 말하고자 할 때, 이것을 슈퍼저작이라고 한다. 즉, 모든 하위 저작을 연결하는 인공적인 구성자이다(VTLS 2004).

슈퍼저작은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된 저작들 사이의 좀 더 나은 배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FRBR 제1그룹의 저작보다도 더 상위의 레벨의 개체이다(Maxwell 2008).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슈퍼저작은 FRBR 모형에서는 제안하고 있지 않지만 신문 매체의 제호의 변경에 따라 서로 다른 저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 2.3 FRBR와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에 대한 FRBR의 적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술지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

Antelman(2004)은 비록 저널이 단일 저작성의 저작과 동일한 의미에서 지적 저작이 연속간행물 커뮤니티에서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널은 수집된 저작들 또는 공유

저작성의 저작으로 고려되어 FRBR에서 모델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Shadle 2007 재인용).

Shadle(2006, 2007)은 연속간행물은 개개 저작들의 컬렉션으로 이루어져 책임성을 공유하는 지적 구성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속간행물의 편집자나 편집위원회는 발간 예정호에 대해서만 편집권을 발휘하고, FRBR는 연속간행물의 권호가 종속 저작 부분이라는 표시에 의해 FRBR 저작으로서의 저널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종속 저작은 규모가 큰 저작에 의존하고, 각각 독립적이고 분해가 가능하므로 연속간행물의 권호가 저작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Delsey(2003)는 연속적으로 간행된 통합 저작과 표현형에 적용이 가능하며, 출판 상태와 권호 표시의 두 가지 특성으로 연속간행물의 구현형에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Riva(2003)는 서명 변경 등에 의해 레코드가 독립된 저작으로 분리될 경우 다른 저작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FRBR의 저작 대 저작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Rosenberg와 Hillman 등(CONSER Task Force on Universal Holdings 2004)은 저널 명칭 변경을 모델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속간행물 표제의 예시들을 포함하는 슈퍼저작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개 저작으로 개개 표제를 간주하고, 관련된 연속간행물의 표현형과 구현형들을 배열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Shadle 2007 재인용).

김혜선, 이혜진, 정도현(2007)은 학술지를 중심으로 FRBR 모형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FRBR의 연속간행물 적용에 대한 연구들은 전체 단위로서의 연속간행물을 저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ISSN 국제센터 및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멤버로 구성된 작업그룹은 CIDOC CRM의 확장인 서지 정보에 관한 객체 지향관인 FRBR<sub>oo</sub>를 확장하여, 저널, 매거진, 신문 등의 계속자료에 더욱 세부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PRESS<sub>oo</sub>라고 하는 형식 온톨로지를 제안하였다(Le Boeuf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신문 발행 이후의 재이용을 위한 보존 형태가 될 수 있는 스크랩북, 제본 신문, 축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판과 사진, 그래픽, 만화 등에 대한 서지 개체에 대해서도 FRBR 모형 적용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3. 데이터 요소 분석

FRBR 모형의 신문으로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의 2.1 FRBR의 통합 개체와 그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에서와 같이 신문은 각 기사의 집합으로서 하나의 저작이 될 수 있으며, 신문기사 또한 저작이 될 수 있다. 신문기사와 신문 매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서 각각 전체-부분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체로 나누어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 3.1 신문 수준

신문은 동일한 제호(신문명)를 가지고 일간, 격일간, 주간, 격주간 등 다양한 간행 주기로 발행되는 연속간행물이다(이창수 2011). 신문은 매체로서의 신문, 호, 판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속성이 판이한 매체이다. 신문, 호, 판 등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간의 경우, 동일 제호 하에 조건과 석간이 별도의 호를 가지고 발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모든 영역을 다루는 종합지, 특정 영역만을 다루는 전문지 등으로 나뉜다. 또, 신문의 배포 영역에 따라 전국지, 지역지 등으로 나뉜다(임영호 2005). 신문은 발행 호수, 판차, 발행자, 발행지, 배포 지역 등이 있다. 신문은 인쇄매체와 전자 매체로 구체화되어 최종이용자에 배포된다. 신문 매체 수준에서의 속성들로서 제호, 발행자, 창간일, 미디어 유형, 발행 주기, 발행 형태, 발행지, 배포 지역, 주제 영역, 발행 목적 등을 들 수 있다.

〈표 1〉에 신문 수준의 주요 데이터 요소를 나타냈다.

둘째, 신문의 호는 지령(호의 수), 발행일, 편집자 등의 속성을 가지는 별도의 개체이다. 같은 제호를 가지고 발행되고 있어도 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편집자가 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다. 지령은 제호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호 단위의 주요 데이터 요소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셋째, 신문의 판은 판의 일련번호, 페이지, 면중, 인쇄인 등을 가지며, 판의 저작이 표현되고 인쇄물이나 전자 매체(PDF 파일 등)로 구체화되어 개별자료가 배포된다.

신문의 판은 동일 호에 대해 여러 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 2013년 1월 5일자(제 14,914호)의 경우, 제42판과 제43판이 섞여있다. 판은 1판, 5판, 40판, 45판과 같은 나름대로의 순서로 바뀌며 마지막 판을 최종판이라 한다. 〈표 3〉에 판의 주요 데이터 요소를 나타내었다.

〈표 1〉 신문의 주요 데이터 요소

요소	설명	예시
제호(신문명)	신문의 이름	동아일보
발행인	신문에 책임을 지는 사람	김재호
창간일	신문이 최초로 발행된 날	1920년 4월 1일
미디어 유형	인쇄신문, 온라인신문 등의 구분	신문
발행 주기	일간, 주간 등과 같은 발행 주기	일간
발행 형태	조간 또는 석간과 같은 발행 형태	조간
발행자	신문을 발행하는 자	동아일보사
주제 영역	종합지, 전문지 등	종합지
발행 목적	상업지, 기관지(사내외보, 대학신문 등) 등	상업지
구독 요금	유가지, 무가지 등	유가지

〈표 2〉 호의 주요 데이터 요소

요소	설명	예시
지령	호의 일련번호	제28,484호
발행일	발행된 날짜	2013년 2월 4일
편집인	발행된 호에 책임을 지는 사람	김재호

〈표 3〉 판의 주요 데이터 요소

요소	설명	예시
판차	판의 일련번호	제40판
섹션	면의 그룹(경제섹션 등)	경제섹션, 주말판
면종	종합면, 사회면 등과 같은 페이지의 면의 종류	사회면
면	판의 페이지	1쪽
인쇄인	인쇄에 책임을 지는 사람	최명호
저작권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 소유자	동아일보사

이와 같이 신문은 제호, 조석간의 구분, 호(지령), 판에 해당하는 각각의 데이터 요소들 기준으로 그 속성이 일반적인 연속간행물과는 판이한 매체로서 각각 별도의 개체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신문 수준과 관련하여 재이용을 위한 보존 형태로서, 제본된 책으로서의 신문, 축쇄판, 신문 매체가 들어있는 마이크로필름판이나 CD-ROM판 등이 있다(이창수 2011). 제본된

신문은 구현형의 신문을 그대로 책의 형태로 제본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축쇄판이란 본지 지면을 축소한 것을 통상 1개월분을 수록하고 색인 혹은 목차를 붙여 간행된 연속간행물의 일종으로 보통 최종판이 수록된다. 또한, 장기 보존과 보존 공간 축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필름판이나 CD-ROM 판 등으로 제작하기도 한다(이창수 2011).

### 3.2 신문기사 수준

신문은 기사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문의 기사는 실세계의 사상뿐만 아니라 뉴스를 중심으로 해설 기사나 문학 작품 등도 다루며, 단순한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사설, 해설, 르포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룬다. 신문기사는 유형에 따라 텍스트 뉴스 기사와 사진 뉴스 기사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 기사는 기사가 세상의 사상을 인지한 사실을 텍스트로 표현한 것이고, 사진 기사는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다. 신문은 뉴스, 피쳐, 그리고 광고로 나눌 수 있으며, 뉴스는 주로 객관적인 보도 기사를 말하며, 피쳐는 뉴스 피쳐와 비뉴스 피쳐로 나뉘는데, 전자는 주로 시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사설, 칼럼, 시사만평 등을, 후자는 시사성이 없는 만화, 퀴즈, 서평, 연재소설, 수필 등을 가리킨다(임영호 2005).

신문기사는 하나의 제목 아래 연속하여 실리는 고정물과 연재물 등도 있다. 고정물은 제목은 같고 연관성이 없는 기사가 실리는 경우, 연재물은 연관성이 있는 기사가 실리는 경우이다. 전자는 동아일보의 '횡설수설', 조선일보의 '만물상' 등이 있고, 후자는 기획 의도에 따라서 연

재되는 기획연재물이나 연재소설 등에서 나타난다.

또한, 신문기사는 기사의 유형으로서 스트레이트 기사(사실 보도 기사), 피쳐 기사, 해설 기사, 논설, 칼럼, 비평 기사, 탐사 보도로 나눌 수 있다(임영호 2005).

신문기사는 기자 외에도 외부의 기고자 즉, 교수, 작가, 일반시민 등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글의 작성자 외에 그래픽을 담당하는 자, 그림을 담당하는 자 등 그 신문기사에 대한 책임을 달리하는 역할도 별도 있을 수 있다.

신문기사 단위의 주요 데이터 요소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한편, 신문 영역에서의 저작권은 두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신문사가 가지는 편집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고, 또 하나는 개개 기사에 대한 저작권이다. 전자는 신문의 독특한 레이아웃 등에 의한 저작물로서의 인정이고, 후자는 기사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다. 기자가 작성한 무기명 기사의 경우는 소속사에 저작권이 귀속되지만, 기명 기사의 경우와 소속 기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외부 기고 등에 의해 게재된 기사는 보통 각각의 개인에게 저작

<표 4> 신문기사의 주요 데이터 요소

요소	설명	예시
기사 종류	텍스트로 표현되거나 사진으로 표현되는 기사의 유형	텍스트 뉴스 기사
기사 유형	보도 뉴스, 사설 또는 칼럼 등과 같은 기사의 표현 유형	보도뉴스
주제	기사의 주제	자동차사고
저작권자	기사 또는 사진이나 문학 작품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홍길동
기고자	기사를 생성한 사람. 기자나 교수 등의 외부 필자	홍길동
제목	기사에 대한 헤드라인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고정물	하나의 제목 아래, 기사의 연속성이 없이 연재되는 기사. 박스 기사라고도 한다.	'횡설수설', '만물상'
연재물	하나의 제목 아래, 기사의 연속성이 있는 연재 기사. 일련번호가 붙는 경우가 많다.	『연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기고자의 역할	기사에 대한 참여 역할 또는 개인의 직업 역할	취재기자



권이 있다(김영욱, 지성우 2005). 저작권의 구분은 신문과 신문기사 개체의 저작에 대한 구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 4. FRBR의 신문 및 신문기사로의 적용

##### 4.1 신문 수준의 FRBR 적용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에 따라 통합 개체로서의 연속간행물과 각각의 논문(기사)은 저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고, 전체-부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신문은 기사들의 집합이고 전체-부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FRBR의 모형으로서는 하나의 저작이 될 수 있다. 단, 신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문, 조석간 구분, 호, 판을 각각의 저작으로서 취급하였다.

신문은 동일 제호 하에 조석간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신문 수준의 FRBR 모형의 적용 예시

- w<sub>1</sub> 동아일보
- w<sub>1.1</sub> 동아일보 조간
- w<sub>1.2</sub> 동아일보 석간

한편, 신문은 각각의 호가 있으며, 신문의 부분으로서 전체-부분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시의 석간은 가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조간으로 간행될 때도 있었을 수 있고 석간으로 간행될 때도 있었을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조간과 석간이 별도로 간행된 때도 있었을 수 있다.

예: 호 수준의 FRBR 모형의 적용 예시

- w<sub>1</sub> 동아일보 조간 제28,454호
- w<sub>2</sub> 동아일보 석간 제11,111호

신문의 각 호에는 여러 판이 있으며, 호와 전체-부분 관계를 형성한다. 각각의 판이 텍스트로 표현되고, 인쇄되거나 전자 매체로 구현되어, 각각의 개별자료가 가정이나 기관 등에 배달된다. 그러므로 내가 집에서 보고 있는(듣고 있는) 한 개의 신문은 인쇄된 것 중 제40판 또는 다른 판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이다. 또는 하나의 호에 일부는 제40판이고 일부는 제45판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 판 수준의 FRBR 모형의 적용 예시

- w<sub>1</sub> 동아일보 조간 제28,454호 40판
- e<sub>1</sub> 원본의 제28,454호 40판
- m<sub>1</sub> 인쇄 버전 제28,454호 40판
- i<sub>1</sub> 우리 집에 배달된 제28,454호 40판
- m<sub>2</sub> 온라인 버전 ver.1
- i<sub>2</sub> www.donga.com에 위치한 파일

한편, 신문은 제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령이 이어지기도 하고, 제호에 따라 지령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서지 세계에서는 하나로 묶을 추상적인 통일 제호가 필요하게 된다. 각각의 저작보다 더 넓은 개념의 인공적인 개체이다. 제호의 변경에 따른 각각의 신문을 저작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신문의 경우,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대한매일, 서울신문 순으로 제호가 바뀌지만 호를 계승하고 있고(한국언론재단 2004; 서울신문 홈페이지),

하나의 집합체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일 제호로서 서울신문을 슈퍼저작으로 할 수 있고, 각각의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대한매일, 서울신문 등을 별도의 저작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신문의 사례를 <표 5>에 나타냈다.

슈퍼저작은 현존하는 서울신문, 예전의 서울신문, 예전의 대한매일신보 등을 한 곳에 배열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구성자이다. 동아일보의 고정물인 '황설수설'이나 조선일보의 '만물상'은 통합 개체로서의 저작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통합 개체이다. 슈퍼저작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슈퍼저작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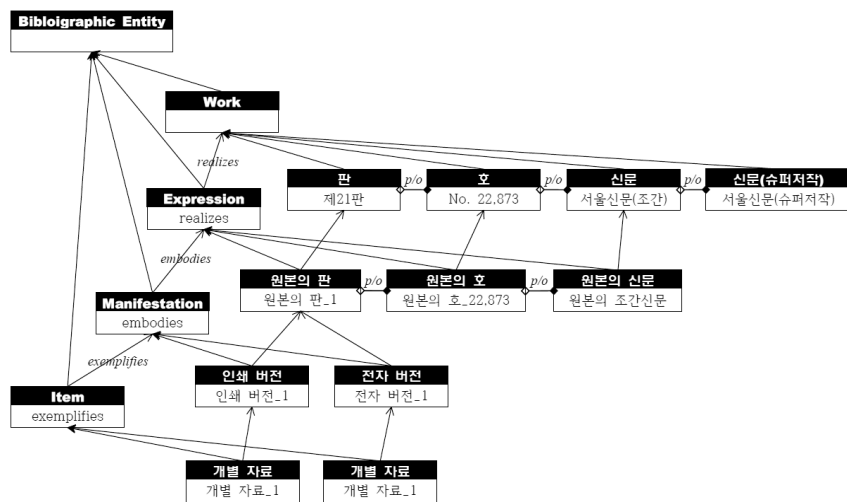
- s1 서울신문(슈퍼저작)
- w<sub>1</sub> 서울신문 2004.1.1
- w<sub>2</sub> 대한매일 1998.11.11.
- w<sub>3</sub> 서울신문 1945.11.22.
- w<sub>4</sub> 매일신보 1910.8.30.
- w<sub>5</sub> 대한매일신보 1904.7.18.

이상의 신문 수준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서울신문(슈퍼저작)』은 '슈퍼저작으로서의 서울신문'을 설정한 것이고, 『서

<표 5> 서울신문(슈퍼저작)의 변천

제호	지령	제호 변경일	특징
대한매일신보	제1호~	1904.07.18	창간 당시의 제호
매일신보(每日申報)	제1,462호~	1910.08.30	1938년 每日新報로 개제
서울신문	제13,738호~	1945.11.22	1959년 3월 23일부터 지령 제13,788호를 제1호로 환산
대한매일	제18,503호~	1998.11.11	매일신보의 지령을 제외하고 대한매일신보와 서울신문의 지령을 합산하여 승계
서울신문	제20,095호~	2004.01.01	제호의 환원. 지령을 합산하여 승계



<그림 1> 신문 수준의 FRBR 모형 적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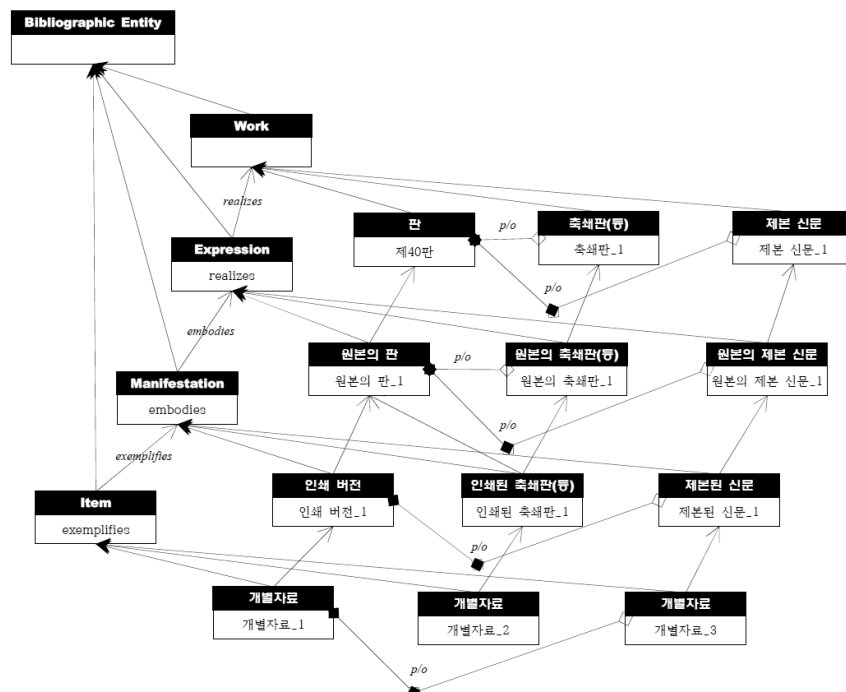
울신문(조간)』은 저작으로서의 신문이며 이것은 제22,873호, 제21판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차례로 전체-부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FRBR 모형의 저작 대 저작 간의 관계 중 독립저작의 후속(후속자료가 있다 ↔ 의 후속자료이다) 관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한편, 신문 수준의 저작 이외에도 판의 구현 형이 제본되거나 혹은 복사되거나 촬영되어 축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으로 하였다. 저작과 표현형은 물리적 용기에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복사는 구현형만 가능하다(溝口理一郎 2012). 또한, 제본된 신문은 구체화된 판의 개별자료를 그대로 모아 1개월 단위로 권으로 하면 그것은 책이 되어 서지 개체 즉, 저작이 된다. 이것

들의 경우 서지레코드 상에서 명시되거나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저작으로 하였다. 지적 노력의 산물인지의 문제를 묻지 않고 별도의 저작으로 한 까닭은 판을 기준으로 구현형인 것은 맞지만 모두 신문 단위로 다시 그것을 구성 요소로 하여 하나의 책(저작)을 이루고 있고, 색인 또는 목차를 붙여 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판의 이형 저작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을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인쇄된 축쇄판(등)’의 구현되다(embodies) 속성이 원본의 ‘인쇄버전’과 ‘인쇄된 축쇄판(등)’에 양쪽으로 관계지어지고 있는 것은 원본판의 구현형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2> 판의 이형 저작의 FRBR 모형의 적용 사례

### 4.2 신문기사 수준의 FRBR 적용

신문기사는 기자가 인지한 사실을 텍스트나 사진 등으로 표현한 저작이며, 인쇄 또는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구현형으로 구체화한 후 개별 자료가 배포된다.

사진, 그래픽, 만화, 캐리커처, 그림, 붓글씨, 시나 소설 등도 하나의 기사를 이룰 수 있으며, 각각은 모두 저작으로 인정되고, 기사와 전체-부분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기사의 저작이 표현된 것은 신문의 판에 구체화될 수도 있고, 전자 매체로서 PDF 파일이나 CD-ROM 등에 구체화되어 이용할 수 있다. FRBR 모형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기사의 FRBR 모형의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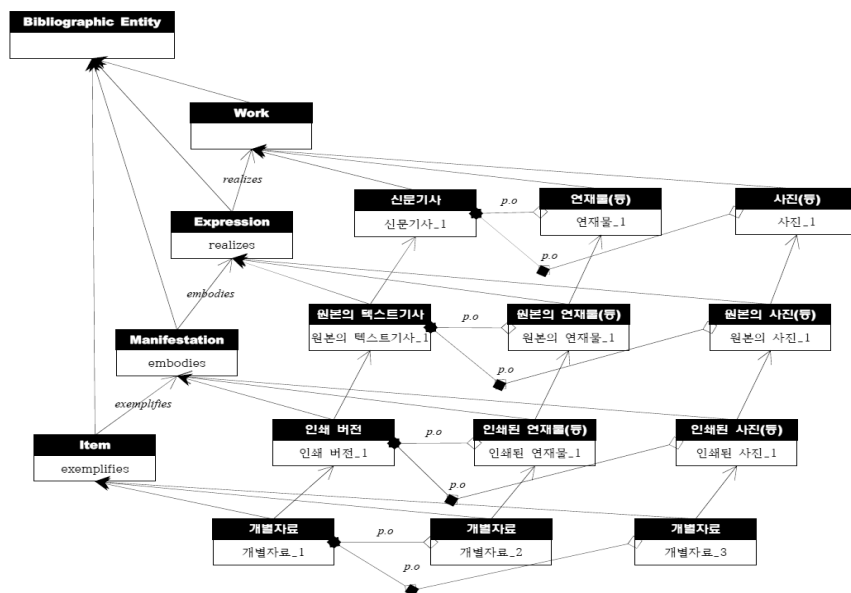
- w<sub>1</sub> 北 3차 핵실험 '김정은 지시'만 남았다.
- e<sub>1</sub> 원본 기사(텍스트로서의 기사)

- m<sub>1</sub> 동아일보(조건) 제28,454호 제45판 p.1
- i<sub>1</sub> A씨 집에 배달된 동아일보 제28,454호 제45판 p.1에 있는 기사
- m<sub>2</sub> 동아일보 온라인판
- i<sub>2</sub> www.donga.com에 위치한 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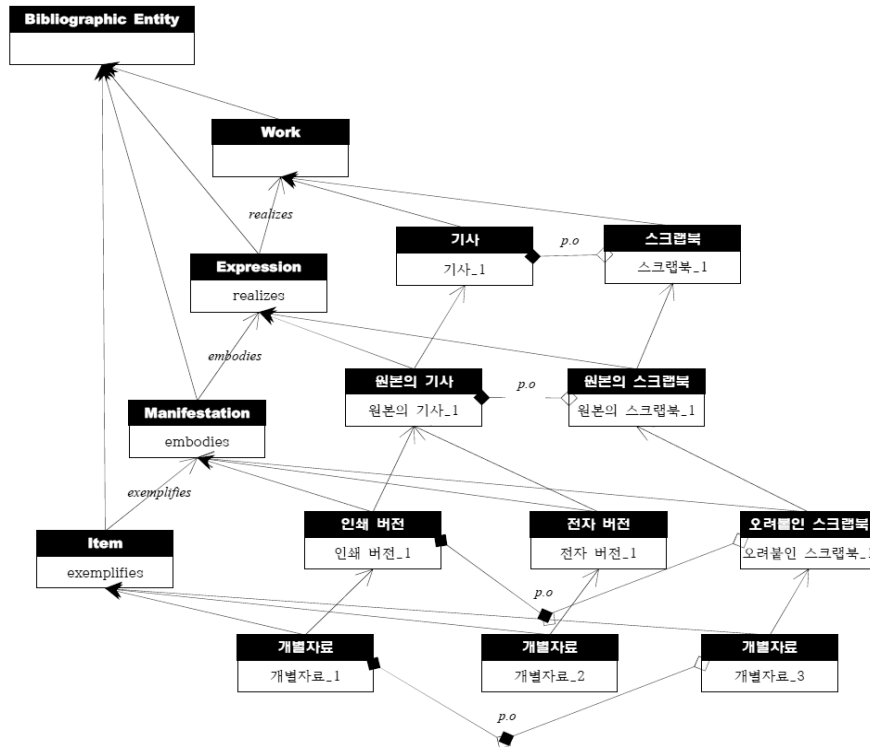
한편, 고정물 및 연재물은 하나의 제목 아래, 각각의 신문기사의 저작이 실리는 하나의 통합된 개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저작으로 하였다. 신문기사와의 사이에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이것 또한 후속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기사는 또 다른 저작인 사진, 그래픽, 표, 만화(만평의 그림), 캐리커처, 회화 등의 그림, 붓글씨 등을 부분으로 가질 수도 있고, 각각 독립해서 하나의 기사가 되기도 한다. 전자는 기사와 전체-부분을 갖는다.

신문기사 수준의 FRBR 적용의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신문기사 수준의 FRBR 모형 적용 사례



〈그림 4〉 스크랩북의 FRBR 모형의 적용 사례

또한, 신문 기사를 오려 내거나 복사하여 스크랩북으로 만들었을 경우, 신문 기사를 오려 내거나 복사하는 경우는 인쇄된 버전이나 전자 버전의 프린트물이 해당할 것이다. 이 때, 복사되거나 출력된 것은 구현형이며 저작이나 표현 형은 복사할 수 없다(溝口理一郎 2012).

스크랩북의 FRBR 모형의 적용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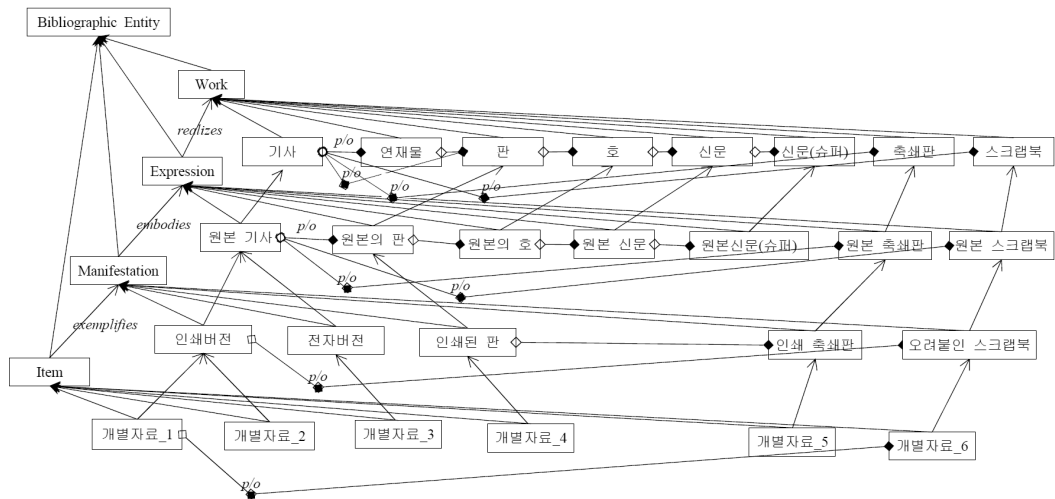
#### 4.3 FRBR 개체별 적용-종합

신문과 신문 기사 수준에서 저작이 될 수 있는 것과 슈퍼저작, 그리고 고정물명과 연재물명과 같은 통일 제목 등 FRBR 개체를 종합하

여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하나의 신문은 조석간 별로 호를 가지고, 호는 판을 가지며 판에는 고정물이나 연재물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 기사의 집합체이다. 판에는 기사가 부분으로 존재한다. 신문은 제호가 바뀌면서도 지령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인공적으로 하나로 묶어 슈퍼저작으로서의 통일 제호를 생각할 수 있다.

제본된 신문, 축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판 등 구현형을 복사하여 제작한 것들은 책과 같은 저작으로 볼 수 있다. 스크랩북은 기사 수준의 구현형을 복사하거나 클리핑하여 레이아웃과 색인이나 목차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과 같은 저작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신문 및 신문기사의 FRBR 모형 적용 사례 종합

### 5. 결론

본 연구는 신문과 그 신문기사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 수준과 신문기사 수준으로 나누어 데이터 요소를 분석한 후 FRBR 모형을 적용하였다.

FRBR의 통합 개체와 그 구성 요소로서 신문, 조석간 구분, 호, 판, 개개의 신문기사를 저작으로 취급하였으며, 순서대로 각각 전체-부분 관계로 규정하였다. 제호의 변경이 있고, 호의 연결성이 있거나 하나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면 슈퍼저작으로 보았으며, 슈퍼저작과 저작은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신문기사는 텍스트, 사진, 그래픽, 표 등으로 표현되며, 기사를 구성하는 사진, 그래픽, 표 등은 별도의 저작이다. 이들 각각의 저작은 기사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독립하여 하나의 신문기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고정물이나 연재물도 하나의 저작이며, 그것들 내의 신문기사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제본판, 축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 판 등에 있는 신문은 판의 구현형들이 다양한 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별도의 저작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스크랩북은 기사 수준의 구현형인 개개의 기사를 복사 또는 종이를 오려내어 별도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별도의 저작으로 하였다.

신문은 연속간행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되, 몇 가지 점에서 차이 점도 보이고 있다.

먼저, 연속간행물의 FRBR 모형의 선행 연구 성과를 계승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간행물을 통합 개체와 그 구성 요소인 개체는 저작이며,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둘째, 권호(조석간, 호, 판 등)는 별도의 저작이다.

셋째, 연속간행물의 표제 변경의 모델화를 위해 슈퍼저작을 사용하였다.

또한, 몇 가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간행물과 그 개개의 논문(기사)의 저작을 각각의 저작으로 보는 것은 같으나 신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문의 호뿐만 아니라 각각의 판도 저작으로 하였다.

둘째, 연속간행물과 권호 그리고 그 개개의 논문(기사) 사이 위주의 전체-부분 관계를 더욱 확대하였다. 기사와 그 기사를 구성하고 있는 표, 그래픽, 사진, 그림 등과의 관계나 신문, 호, 판 사이 그리고 판의 구현형과 복사되어 제작된 축쇄판 등과도 전체-부분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고정물과 연재물은 별도의 저작으로 하였으며, 신문기사와의 사이에 전체-부분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제본된 신문, 축쇄본, 영인본, 마이크로 필름판 등은 구현형의 복제이지만 판을 기준으로 복제된 후 주로 1개월 이상 하나의 묶음으로 생성되고 색인 및 목차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저작으로 하였다.

다섯째, 기사 단위의 클리핑 기사를 스크랩북에 붙여 만든 경우도 독특한 레이아웃이나 색인 및 목차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으로

하고 FRBR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문 및 신문기사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 및 신문기사를 FRBR 모형의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데는 무리함이 따르며, FRBR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RBR 모형을 적용 및 응용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자료 등과의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FRBR 모형을 적용하여 신문과 신문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 FRBR 모형만의 범위 내에서는 신문과 신문기사를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고 역시 슈퍼저작 등을 도입하고 신문이나 신문기사 단위를 세분하여 FRBR 모형을 적용하였지만, 이용자 커뮤니티에서 표준화를 이루지 않으면 무리함이 따른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FRBR 모형을 활용하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고의 주제와는 달리 기타의 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다.

신문과 신문기사의 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타 영역의 FRBR 적용에 관한 연구에도 참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FRBR의 제2그룹과 제3그룹과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영옥, 지성우. 2005.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서울: 한국언론재단.  
 [2] 김혜선, 이혜진, 정도현. 2007. FRBR 모형의 연속간행물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07

-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2): 449-453.
- [3] 서울신문. *서울신문안내*. [online]  
〈<http://www.seoul.co.kr/company/company.php?sub=tradition>〉
- [4] 이창수. 2011. 『연속간행물의 관리』. 대구: 태일사.
- [5] 임영호. 2005. 『신문원론』. 서울: 한나래.
- [6] 한국언론재단. 2004. 『한국신문방송연감 2004/2005』. 서울: 한국언론재단.
- [7] 溝口理一郎. 2012. 『オン トロ ジー工學の理論と實踐』. 東京: オーム社.
- [8] Antelman, K. 2004. "Identifying the serial work as a bibliographic entity."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8(4): 238-255.
- [9] Arlene, G. T. 2007. *Understanding FRBR: What It Is and How It Will Affect Our Retrieval Tools*. 오동근 외 공역. 2010. 『FRBR의 이해』. 대구: 태일사.
- [10] Carlyle, A. 1996. "Ordering Author and Work Records: An Evaluation of Collocation in Online Catalog Display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7: 538-554.
- [11] CONSER Task Force on Universal Holdings. 2004. "An Approach to Serials with FRBR in Mind." [online] 〈[http://www.lib.unc.edu/cat/mfh/serials\\_approach\\_frbr.pdf](http://www.lib.unc.edu/cat/mfh/serials_approach_frbr.pdf)〉
- [12] Delsey, T. 2003. *FRBR and serials*. Washington D. C: Library of Congress. [online]  
〈<http://www.ifla.org/VII/s13/wgfrbr/papers/delsey.pdf>〉
- [13] Fattahi, R. 1996. *Relevance of cataloguing principles to the on-line environment: an historical and analytical study*.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吉田曉史. 2001. "整理技術研究グループ勉強會記録." 『メディアの分析的研究』, 13.
- [14]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 1998.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김태수 역. 2003.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최종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15] Le Boeuf, P. et al. 2014. *PRESSoo: Extension of CIDOC CRM and FRBRoo for the modelling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pertaining to continuing resources, Ver. 1. 0*. Paris: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online]  
〈<http://www.issn.org/the-centre-and-the-network/our-partners-andprojects/pressoo/>〉
- [16] Maxwell, R. L. 2008. *FRBR: A Guide for the Perplex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17] O'Neill, E. 2005. *Relational Model for Aggregates*. Hague, Netherlands: IFLA FRBR Workshop. [online]  
〈<http://www.oclc.org/content/dam/research/activities/frbr/frbr-workshop/presentations/ONeill-Aggregartes.ppt?urlm=161350>〉



- [18] Shadle, S. C. 2006. "FRBR and serials: an overview and analysis." *The Serials Librarian*, 50(1/2): 83-103.
- [19] Shadle, S. C. 2007. *FRBR and Serials: One Serialist's Analysis in Understanding FRBR: What It Is and How It Will Affect Our Retrieval Tools*.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 [20] Smiraglia, R. P. 2007. *Bibliographic Families and Superworks in Understanding FRBR: What It Is and How It Will Affect Our Retrieval Tools*.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 [21] Vellucci, S. L. 2007. *FRBR and Music in Understanding FRBR: What It Is and How It Will Affect Our Retrieval Tools*.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 [22] Visionary Technology in Library Solutions, 2004. *VIRTUA ILS - INTEGRATED LIBRARY SYSTEM: FRBR Cataloging User's Guide (Version 43.1)*. Virginia: Visionary Technology in Library Solutions. [online] <[www.viks.sk/digitus/kis3g/WORD/43frbr.doc](http://www.viks.sk/digitus/kis3g/WORD/43frbr.doc)>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Yeong Ook and Ji, Seong Woo. 2005. *Copyright of News Works*.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2] Kim, Hye Sun, Lee, Hye Jeen and Jeong, Do-Heon. 2007. A Study on the FRBR Model Adaptation to Seria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5(2): 449-453.
- [3] Seoul Shinmun. *Seoul Shinmun Annae*. [online]  
<<http://www.seoul.co.kr/company/company.php?sub=tradition>>
- [4] Lee, Chang Soo. 2011. *Managing Serials*. Daegu: Tailsa.
- [5] Lim, Yung-Ho. 2005. *Principles of Newspaper*. Seoul: Hanarae.
- [6] Korea Press Foundation. 2004. *Korea Media Year Book 2004/2005*.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7] Mizoguchi, R. 2012. *Theory and Practice of Ontology Engineering*. Tokyo: Ohmsha.
- [9] Arlene, G. T. 2007. *Understanding FRBR: What It Is and How It Will Affect Our Retrieval Tools*. Oh, Dong-Geun et al. ed. 2010. *Understanding FRBR*. Daegu: Tailsa.
- [14]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 1998.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Kim, Tae-Su ed. 2003.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